

Bruce Waltke 박사, 시편, 강의 9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9, 이교도 이미지, 시온, 시편 100편입니다.

우리는 찬송과 찬양의 노래를 남기고 찬양으로의 부르심에 대해 이미 논의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런 다음 칭찬의 이유에 대해 약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놀라운 신학, 신학을 전하는 송영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을 들어왔고, 그것이 송영의 방식으로 신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 밖에는 뭔가 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찬양의 노래에서 그들은 이교 신화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며 그분의 창조와 혼돈의 세력을 극복하시는 방법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끝냈습니다. 내가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나의 창세기 주석을 읽으면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은 배열, 즉 조직된 우주 전체를 의미한다는 요약 진술이다. 그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게 다야. 그러면 분리가 발생합니다. 이제 지구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번역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요약 진술과 정반대로 혼란스러웠거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테후 였어 바보후 . Tehu vabohu는 기본적으로 hanky-panky, hotsy-totsy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 테후 였어 바보후 .

그것은 엉망이었다. 당신은 여기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tiamat 와 관련된 tehum 의 얼굴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논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아의 재연, 노아의 방주, 창세기 8장에서 혼돈과 홍수가 돌아온 후에 바람이 수면에서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바람이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 될 수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양가적이다.

한 가지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번역은 양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상황을 창조하십니다.

시인들은 여기에 이 어둠과 심연과 물이 있었고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빛을 가져오셨다는 이교 신화를 극화했습니다. 그는 어둠을 이겼습니다. 어제 Cody와 저는 어둠이 당연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둠은 힘이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시로 사용하면 어두운 방과 밝은 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을 열면 어두운 방은 더 밝아지지만, 라이트룸은 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진짜인 유일한 것은 빛이고 빛은 그것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은 하나님 없이는 빛도 없다는 기본 진술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서는 여기에 약간의 미스터리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어둠을 이기시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이겨내고 가정으로 가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라합, 리워야단, 암, 바다와 싸우시는 혼돈 속에서 그것을 상상합니다. 시편 93편에는 바다가 솟아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셨으나 어둠을 제거하지 않으셨음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으로 바다를 이기셨을 때, 바다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바다가 있고, 바다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원래는 온통 바다였어요. 온통 어두웠어요.

이제 그것은 혼합물이고 빛과 어둠이 있고 바다와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종말에 요한은 보고 또 보고 더 이상 바다가 없을 것입니다. 혼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십시오.

그는 그것이 모두 어린양의 빛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빛에 도달합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어둠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중간 시간에 있는데, 이는 둘 사이의 긴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마침내 빛은 끝나고 삶은 죽음을 극복합니다.

보세요, 이 시들은 이교 신화의 관점에서 그 투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문학적인 암시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모세 언약으로 인해 충분한 안전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턴을 읽을 때 저는 그가 뮤즈나 그리스 신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시인이예요. 좋아요. 한 가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시편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단지 우리가 시편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작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알의 주요 신, 그의 산은 사폰 (Zaphon)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가 살았던 곳입니다.

사폰 산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시리아 북부의 카시우스 산일 겁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곳에서 신들이 만나고 신들이 거주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가리트 신학 전체를 다룰 수는 없지만 바알이 사폰 산에 살았고 사폰 산은 신들의 거쳐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사폰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자신의 도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를 기념합니다. 그것은 어떤 자연의 힘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성전 등을 건축하기 위해 거쳐로 시온산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레빈슨은 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그의 『시나이와 시온』 책을 읽어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청동기 시대 우가리트 문헌에 대한 지식이 시온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말합니다.

사폰 에는 바알이 거하며 사폰 은 성소라 일컬어진다. 거룩하다는 것은 신에게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아시다시피 거룩함의 반대말은 모독적입니다.

욕설은 무슨 뜻인가요? 음, 욕설은 라틴어 profanum 입니다. 그것은 이전을 의미하고, pro는 이전을 의미합니다. 파네(Fane)는 라틴어로 신전을 뜻하는 파눔(fanum)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불경한 것은 성전 앞에 있는 것, 성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욕설이에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로 있는 세트예요. 카디쉬(Kaddish)는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고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의 산입니다. 이것은 Zaphon 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바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성소라고 불린다. 그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알은 별로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아나트(Anat)는 성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말은, 그녀는 섹스와 폭력의 전형이라는 거죠. 그녀의 전투 중 하나에서 그녀는 희생자들을 학살하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핏덩어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적들의 머리는 그녀의 손에 달린 팔찌입니다. 내 말은, 이 여자는 매우 폭력적인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춘부, 즉 불성실한 여자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그다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때, 이런 맥락에서 신에게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곳, 나의 기업의 산, 택한 곳, 승리의 언덕 등이니라. 그러면 여기 우리가 시내산, 시온을 묘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말은, 여호와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성, 그의 거룩한 산에서 가장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높이가 아름다워 온 세상이 기뻐함 같으니 큰 왕의 성 시온산이 사뭇 의 높은 산과 같도다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뭇 은 가나안 산과 가나안 산이 있었던 모든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에서는 시온 산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다지 깊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바알 숭배자에게는 시온이 살아 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Zaphon 에 대해 읽으면 그것이 바로 Zaphon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의 산을 가리키는 것이며 바알에 대한 논쟁이다. 그것은 우리가 시온산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는 그것을 거기에 떨어뜨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덟 번째 강의, 시편 100편을 들으러 갑니다.

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꺼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댓글을 달 때 번역본을 가지고 가세요.

이것은 위 첨자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희생도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온 땅이다라고 외쳐라. 기쁨으로 나 자신을 섬기라. 즐거운 소리로 그 앞에 나아오라.

내가 존재하고, 그가 신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고, 참으로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이 기르시는 양 떼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의 칭찬을 해주세요. I Am이 좋으므로 그의 이름을 축복하십시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이 모든 창조물에 미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아침 전례에서 매일 아침 이 시편을 낭송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예배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땅 이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

아, 글썄요, 이제 저는 계속해서 여기에 나섰습니다. 온 땅 이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노래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나오십시오. 이것을 알라, 주님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목장의 양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십시오. 여호와를 선택하시니 그 이름에 감사하고 감사하라.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례의 일부로 매일 아침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찬양을 선포한 후에는 이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에는 제가 즐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입니다. 나는 전례를 좋아합니다. 하루에 네 번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루 세 끼 식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루 네 번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습니다.

순수한 형태의 성공회는 매우 거룩하고 훌륭합니다. 나는 84세에 신부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침례교 목사가 전환점을 갖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고 여기서 다 망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자.

찬양을 드리는 시편, 감사 찬양, 나는 여호와여, 나는 온 땅이니라 외쳐라. 기쁨으로 나 자신을 섬기라. 즐거운 소리로 그 앞에 나아오라.

내가 존재하고, 그가 신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분 자신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양 떼를 치는 목자들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의 칭찬을 해주세요. I Am이 좋으므로 그의 이름을 축복하십시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느니라. 로마 숫자 3으로 내려가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교대 구조이며 그 안에 약간의 교차점이 있습니다.

교대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절에는 두 개의 연이 있는데, 둘 다 찬양하라는 요구와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는 온 땅이 나니라라고 외치고, 기쁨으로 나 자신을 섬기고, 즐거운 소리로 그 앞에 나아오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자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75페이지의 두 번째 연에서 이를 반복합니다.

두 번째 연은 칭찬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곳에서 찬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십시오(4절). 그리고 5절에서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하고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찬양하라고 부르는 명령은 시편에 나오는 일곱 가지 명령의 교차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치고, 기쁜 소리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나아와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알고,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 그분께 찬양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말씀과 1절에 있는 말씀을 너희가 번역할 때에 그 둘을 너희 앞에 지키면 거기서 너희가 즐거운 소리로 그 앞에 나아왔느니라.

그리고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라. 히브리어로 와서 들어가라는 동사는 이 두 구절이 서로 일치함을 암시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앞에 나아와 그의 궁정에 들어갔을 것이니라

그러면 B는 기쁜 소리로 그를 섬기고 B는 칭찬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름을 외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축복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시편의 중심점과 요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 즉 교차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교차현상이 물에 돌을 던진 다음 파문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끝 잔물결은 서로 일치하며 아래로 향합니다. 중요한 점은 바위가 물에 닿는 지점입니다.

그것이 x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저는 바위가 물에 닿는 x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며 땅의 축복의 매개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나는 수사학에 대해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6페이지로 넘어가서 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시편의 개요, 즉 기억하기 매우 쉬운 부르심과 원인이라는 두 연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머리 속에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가 듣는 윗첨자는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서 얻고 있는 것은 증거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나올 저의 논평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방금 시편을 완성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Jim Houston과 함께 출판될 논평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주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지혜이자 그리스도인의 찬양으로서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쓴 시편은 주요 찬양 시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100번째 곡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밀도가 높으며 그 중에서 특정 자료를 강조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시편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이미 시편이 악기와 함께하는 노래, 종종 현악기의 피치카토와 함께 나오는 노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음악의 가치, 그것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감히 논의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모르지만 감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의 간청도 없이 저와 마찬가지로 제단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음악은 영혼에 말을 겁니다. 선지자들은 올바른 영을 갖게 하는 현악기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음악은 당신을 올바른 정신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며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음악은 나를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일부이고 예배의 일부이며 의사소통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거의 모두가 시편, 작은 시편, 반주가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고마운 칭찬을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그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논의가 있지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77페이지의 첫 번째 연, 찬양하라는 부르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마디씩 가며 우리는 외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존재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열심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치다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나팔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도시가 침략을 당한다면, 이것은 큰 소리로 외치다, 큰 소리로 경보를 울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각적으로 시끄러운 경보음이 울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축구 경기에서 팀이 득점할 때 외치는 소리가 저절로 그 팀에 대한 큰 함성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팀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을 부르짖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열정이고 활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전투 명령에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승리의 함성으로 사용됩니다. 트럼펫을 부를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부 루아흐에서는 홈팀이 골을 넣었을 때 들리는 그런 외침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배는 장례식과 같아서 안 되며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I Am을 외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논의합니다. 신의 이름은 문장 이름이다. To I Am은 약칭으로 사용됩니다.

문장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는 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야훼 작가와 제사장 작가 등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다른 기원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질문은 실제로 이름을 몰랐다면 미심 차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 심차,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다릅니다.

그러니 나에게 다른 이름을 알려주시면 기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그가 묻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이름은 다소, 제 이름은 I Am Who I Am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를 수반합니다. 나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존재한다(I Am)'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가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존재 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를 신성모독죄로 비난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영원한 존재인 I AM이라고 밝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또 다른 측면은 I Am Who I Am입니다.

그분은 항상 변함없는 영원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존재하는 존재이시며, 구원의 새로운 행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역사적 행위는 끊임없이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타내신 금송아지를 통하여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과정에서 그분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셨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더욱 분명 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변하지 않으시지만, 구약에서 우리는 그분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더욱 분명 해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삼위일체이심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삼위일체는 음악의 삼중 화음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셋과 하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셋과 하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 E, G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C, E, G 음표는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동일하지만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를 꺼내십시오.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평등하고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삼위일체에 가장 가깝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 이르면 C, A, E, G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성서에서 나는 '존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에게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아들을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라는 이름은 말하지 않는 것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 말은, 내가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두 나보다 앞서 있습니다. 지금은 뉴캐슬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훨씬 앞서 있는 합창단의 합창단 지휘자입니다.

좋아요. 나는 너무 위선적이라고 느낀다. 괜찮은.

자주 고백하는 것은 영혼에 유익합니다. 좋아요. I Am을 외쳐보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온 땅에 대한 이 개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이죠.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온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 자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온 땅이 이스라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자신에 대한 지식을 전파할 중개 왕국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온 지구와 함께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막대기를 통과했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Melanie는 내가 어떻게 헤쳐 나갈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첫 번째 막대, 첫 번째 줄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나는 두 번째 줄에 서 있습니다. 섬기고, 내가 기뻐하는 봉사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당신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과 당신의 주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당신의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르노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시편에서는 당신이 성전에 있고, 당신의 희생과 찬양과 간증으로 당신의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주인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헌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 동료 형제자매들, 기도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귀하의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기도로 수고하며 그것은 함께 일하는 것, 기도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또 다른 아이디어는 우리가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으며 우리는 무언가를 섬깁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들은 무엇이든 거부해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속입니다. 나는 Brueggemann의 말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끝에 이탤릭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칭찬하는 것은 대안적인 충성심과 현실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칭찬은 끝없이 논쟁적이다. 주 예수님은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와 기도와 찬양으로 드리는 것은 그분께 헌신적인 충성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분께 외치는 일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기뻐하는 것이 단순히 내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차(simcha)라는 단어는 거의 뛰다, 뛰어오르다라는 뜻이다.

기쁨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온 마음의 기쁨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다음 문장에서도 이 기쁨은 억제된 비활성 정신의 성향이 아니라 즐거운 뛰기, 발 구르기, 손뼉 치기, 춤, 음악, 즐거운 외침 등 기본적인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표현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디오니소스적 활력은 결혼 생활에서 발견됩니다. 포도주 수확, 승자의 영접, 왕의 대관식, 성일 등이 여기에 사용됩니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지속적인 내적 기쁨이 아니라 축제에서 표현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영적인 충만함에 참여합니다. 그는 열정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나에겐 성장하는 방법이 있다. 좋아요.

괜찮은. 나는 기뻐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멜라니, 두 번째 막대를 끝냈어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막대기까지 왔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그 앞에 나아오라. 여기서 내가 논의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댓글의 이 부분에서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논하고 있는데, 무슨 단어인가요? 유비쿼터스, 하나님의 편재성, 그리고 그의 독특한 존재.

요점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내가 주의 면전에서 어디로 도망하리이까? 내가 천국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스올 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아침 햇살의 날개를 달고 바다 저편에 빛을 비춰도 거기 당신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수직축으로는 천국에서 지옥까지, 수평축에서는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단어 맞죠? 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가요? 하지만 그것은 성전에 독특하게 존재합니다. 그 독특한 존재가 바로 그분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주적으로 현존하시지만 그분의 축복은 우주적으로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에 현존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 위에 좌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곳에 그분은 축복의 임재로 독특하게 현존하십니다. 그게 그의 독특한 존재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분은 독특하게 현존하십니다.

그분의 옷에 손을 대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면 우리는 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그분은 노래와 합성, 축복으로 그분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고 이제 우리는 원인을 얻었고 시편의 핵심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오도록 초대받았고, 열방은 그분 앞에 나아오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 근본적인 교리를 갖기 전에는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첫 번째 기본 교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단지 거기에 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면전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는 너희가 알아야 할 구별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임을 아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목장의 양이며 중보의 왕국입니다. 중재의 왕국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하기 전에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기 위해 이것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80페이지에서 성전 단지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나는 홀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은 그의 택하신 백성임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식 공식에 대해 이야기해서 흥미롭습니다. 어제 내가 내 이름 야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모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IAM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족장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에노스의 시대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그 이름으로 알려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아직 자신의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일어난 어떤 일과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음과 혼돈을 물리칠 수 있는 신이다.

그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때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나 그것을 목격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에스겔서에서는 예언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지도록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이 자신의 사원을 잃었을 때, 내가 여기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언덕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성전을 잃었을 때 왕좌도 잃었습니다.

그는 매우 하위 신이 되거나 전혀 신이 아닌 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점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폐허가 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우리에게 노래해 달라고 말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레받지 않은 이교도 왕인 고레스가 시온을 다시 건설하고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꿈꿔 본 그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모든 역경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주셨습니다. 누가 그런 걸 예언할 수 있었나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미리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게 없는데, 오늘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국민의 증언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었고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데려오려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매 세대마다 부활을 하셨다면 역사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얻기 위해 바다를 건너지 말라고 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맡겨 암송하게 하고 궤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년마다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들에게 힘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2000년 동안 그는 어린양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의지가 그를 증거합니다. 거기에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은혜이지만 세상에 대한 그들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 댓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신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엘로힘(Elohim)이라는 단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이 신성한 본성과 영원한 능력의 정수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수형은 그가 철저히 그런 인물임을 강조한다.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삼위일체의 증거로 셀 수 있는 복수형은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어에서는 복수형이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것은 그것이 어떤 것의 전형적인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아닌 모든 신적 존재의 본질적인 본질입니다. 81페이지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 중앙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의 기본 어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칭찬하다는 무슨 뜻인가요? 시편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시편 전체에 스며드는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음 페이지 82에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만들 때 우리가 그들을 만들었고 두 족장을 그의 가족으로 선출하는 일이 수반되었습니다.

즉, 그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부가 된 것이지,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그를 매우 기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영원히 나의 파트너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참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악마의 씨앗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씨에 관해 말할 때,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하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 그의 자녀들을 의로 가르칠 사람들 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8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독생자까지 드리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삼으시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입양하시고, 그들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일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접붙여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국가로 만들었고 여기서는 국가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습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공동의 땅이 있고 공동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국민, 법, 그들을 하나로 묶는 일종의 헌법, 살 곳, 통치자, 그들을 다스리는 정부의 네 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국가의 네 가지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전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항상 의도하신 대로 들어올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동일시됩니다. 물론 그들의 관습법은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점은 옛 경륜의 시대에는 그것이 반석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 경륜에서는 마음에 법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며 성령께서 이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것은 영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10계명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미국에서 단편화된 것은 더 이상 공통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은 성경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공통된 도덕법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통된 이야기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속 세계에서는 더 이상 관습법, 도덕법이 없으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관습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라는 주제를 추적해 보면 갑자기 신약성경에 아무런 언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땅은 구약성경 편집본에서 네 번째로 자주 나오는 단어이자,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서신서나 땅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용된 유일한 장소는 갈라디아서 4장인데,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두 개의 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부정적입니다. 나는 여기서 뭔가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방금 깨달았습니다.

가르침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땅은 당신의 안전 장소입니다.

땅은 당신의 삶의 장소입니다. 땅은 안식처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고 거하는 땅이심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관습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통의 통치자가 있고 우리가 사는 공동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완벽한. 같은 것. 그게 하나야.

완벽한. 아주 멋진.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82페이지에 나오는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온 땅이 그의 것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특하게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난 안 갈 거야, 내 생각엔 그냥 거기에 너무 많은 게 있을 것 같아.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9, 이교도 이미지, 시온, 시편 100편입니다.